

세계자연유산의 새로운 도약... 제주 '숨결'과 마주한다

2020 세계유산축전

문화재청 공모사업 최종 선정돼 올해 첫 선 자연·생명·제주의 '숨결' 주제로 9월 4일~20일 세계자연유산 제주브랜드 가치 극대화 기대 '보물섬 제주' 각인...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

2007년 7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라는 쾌거였다. 돌과 바람, 오름과 바다, 독특한 문화와 수려한 자연이 한 데 어우러진 '제주섬'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세계가 주목한 제주의 가치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과 독특한 가치를 가진 자연유산에 붙여지는 이름인 '세계자연유산'은 제주를 세계인의 보물섬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제주의 자연경관과 독특한 지질·문화자원들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자연유산'은 세계적으로도 등재 수량이 적고, 등재조건 및 이후 유지가 가장 어려워 희소성과 상징성이 크다. 그만큼 국제적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는 국가적 영광이기도 하다.

2019년 등재 기준 전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1121점 (문화유산 869점, 자연유산 213점)

점, 복합유산 39점). 이 중 우리나라에는 문화유산 13점, 자연유산 1점 등 총 14점의 세계유산이 있으며, 국내 유일의 자연유산이 분포돼 있는 곳이 바로 '제주'다.

등재 이후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행사는 국내 생태관광을 대표하는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등재 13주년을 맞으며, 제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금 보물섬 제주의 자연자산 보전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브랜드로서의 위상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세계유산축전'이 바로 그 시작이다.

감춰진 비밀의 문을 열다

'세계유산축전'은 '자연·생명·제주의 숨결'을 주제로 내걸고 오는 9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려진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 국민이

향유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미 성공한 '궁중문화축전' 사업 및 '유럽연합 문화유산의 해'가 모델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말 문화재청 공모를 거쳐 경상북도와 '한국의 서원' 축제를 수행할 (재)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등과 함께 '2020년도 세계유산축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후 도는 축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감독에 김태욱 감독을 위촉하고,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차근차근 준비에 나서고 있다.

김 감독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모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망라한 '2018 평창 문화올림픽'과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에서 총감독을 맡아 기획·연출해 제주도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현재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세계유산전문가, 유산마을주민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축전 추진위원회(위원장 강만생)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세부일정과 계획이 수립 중이다.

'세계유산축전'은 가치향유와 가치확산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구인 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 전역에서 펼쳐진다.

현재 계획상의 가치향유프로그램은 개막식 '세계자연유산 기억의 날'을 비롯해 국내외 작가들의 설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아트프로젝트 '불의 숨결'과 아뜰리에 '불의 기억', 성산일출봉 라이트 아트쇼 등 다양한 주제공연과 특별전으로 구성됐다. 만장굴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이동공간에 따른 빛과 소리, 신비스러운 영상 등을 선보이는 만장굴 몰입형 퍼포먼스도 주목된다.

가치확산프로그램은 전문가 컨퍼런스·세미나부터 워킹투어 등 탐방·체험교육이 주를 이룬다. 특히 미공개 자연유산 공간들을 둘러보는 워킹투어·탐방 프로그램은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인다.

투어프로그램은 거문오름에서 시작한 용암

세계자연유산 원정대 운영도 구상 중이다. 사진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숨결'과 '한라' 원정대는 세계유산축전의 '기억의 날'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거문오름에서 시작된 용암동굴계의 흐름을 따라 성산일출봉까지 이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세계자연유산의 감춰진 비밀의 공간을 일반인들에게 일부 개방해 탐방하는 특별체험 프로그램 '세계자연유산 탐험대'는 '세계유산축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도는 '세계유산축전'이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확산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의미를 두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축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도 예외 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도민, 국민, 세계인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키기 위한 담금질을 마치고 드러낼 '세계유산축전'의 위용이 기대된다.

오른기자 eioh@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0,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인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연료'가 아니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9-GN1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